

장현식 “타자와 수싸움 집중하니 야구가 재밌다”

지난 겨울 스프링 캠프 전 일본 돗토리현 트레이닝 센터서 훈련
을 도입된 ABS도 수싸움에 도움... 팀 승리·가을잔치 위해 최선을



KIA 타이거즈 장현식의 야구가 재미있어졌다. KIA는 올 시즌 탄탄한 마운드를 앞세워 '우승 후보'로 주목 받고 있다.

지난 겨울 KIA는 마운드 강화를 위해 정해영·이리라·윤영철·황동하·곽도규 등 신예 선수들을 미국 드라이브 라인에 파견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야구 방향을 잡으면서 올 시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장현식도 지난 겨울 해외로 가 '배움의 시간'을 보냈다. 장현식은 사비를 들여 일본 돗토리현의 트레이닝 센터를 찾아 야구 공부를 했다.

지난 12월 결핵식을 올린 '새 신랑'이기도 한 장현식은 '반전'을 키워드로 새 시즌을 준비했다.

장현식은 "겨울에 결핵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 무조건 반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전부터 선수들이 많이 다녔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제대로 배워왔다. 야구를 잘하고 싶어서 야구를 잘하는 쪽으로 도움을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집장을 드리려고 국가대표 코치인 최일언 코치님한테 연락드렸다. 겨울에 트레이닝 센터에서 훈련해볼 생각이 없냐고 말씀하셨다. 마침 변

화를 추구하고 있어서 주저 없이 가겠다고 했다"며 "12월에 가보고 내 몸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 스프링 캠프 가기 전 1월에 더 길게 갔었다"고 말했다.

최일언 코치와의 인연은 NC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코치는 '투수 장현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스승이다.

장현식은 "코치님은 신인 때부터 내 몸과 던지는 걸 보신 분이죠. '날 것'의 장현식을 아시는 분이죠. 아무 것도 없을 때부터 보던 분이니까 나를 잘 아신다. 그래서 '너한테는 여기가 제일 좋을 것'이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서 장현식은 경기를 위한 몸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타자들과 싸우는 전략을 새로 짰다.

장현식은 "내가 느낄 때 힘이 부족한 선수는 아니다. 그곳에서는 힘보다는 몸의 협응력 이런 것을 배웠다. 안 다치기 위한 이런 느낌으로 배웠다. 뭔가 필요 없는 힘을 안 쓰게 되는 것 같다. 가볍고 부드러운 동작으로도 공 꺾이 확실하게 더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결과가 안 좋더라도 내 공이 좋으면 기본 좋은 선수였다. 지금은 타자를 어떻게 상대할지, 생각적으로 바꾸고 나서는 달라졌다. 공이 좋든 안 좋든 그건 둘째 문제다. 어떻게 하면 타자랑 싸

울 수 있나를 더 생각하게 된 것 같다"며 "타자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깨닫고 머릿 속으로 그려가면서 한 시즌을 보내고 싶다. 좋은 공을 던지는 것은 환상일 뿐이고 진짜 상대 타자와 싸우는 게 재미있고 행복하다. 내 공이 아니라 상대 타자에 집중하니 야구가 많이 재미있어졌다"고 웃었다.

올 시즌 새로 도입된 ABS(자동투구판정시스템)도 반전을 노리는 장현식에게는 좋은 변화가 됐다.

장현식은 "일단 존이 명확하니까 좋은 것 같다. 나 같은 정교함을 가지지 못한 투수에게는 정말 좋다. 포수가 잡는 것에 따라 판정이 이뤄지는 건 아니니까 존을 얼마나 잘 던지느냐의 싸움이 됐다"고 말했다.

반전을 위한 출발은 좋다. 16일 SSG전까지 11경기 나온 그는 10.1이닝을 0.87의 평균자책점으로 막으면서 4홀드를 기록하고 있다. 장현식은 묵묵한 주인공으로 꾸준하게 팀 승리와 가을 잔치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장현식은 "올 시즌 조용조용하게 가고 싶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들 잘 하고 있어서 서로 이 분위기를 깨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많이 이기고, 잘 이길 수 있는지를 조금씩 느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팀이 높은 순위에 있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나도 더 무리할 필요 없이 그냥 그냥 타자씩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하겠다. 이런 걸 쌓아가면서 상대 이름만 들어도 상대할 수 있는 시즌을 보내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겨울 일본에서 '야구 공부'를 한 장현식이 더 강하고 빠른 공으로 팀의 승리를 지키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홍성찬이 지난 16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 센터 코트에서 열린 ATP 광주오픈 챌린저 2024 32강전에서 일리아 마르첸코(우크라이나)와 경기를 하고 있다. (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

테니스 홍성찬, 광주오픈 챌린저 우승 노린다

32강 우크라이나 마르첸코에 2-0승

테니스 국가대표 홍성찬이 부산오픈 준우승의 기세를 이어 광주오픈 챌린저 2024에서 우승을 목표로 뚫는다.

홍성찬은 지난 16일 진월국제테니스장 센터 코트에서 열린 '2024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 32강에서 일리아 마르첸코(Ilya Marchenko-우크라이나·239위)를 2-0(6-3, 6-2)으로 꺾으며 16강에 올랐다.

그가 상대한 마르첸코는 그랜드 슬램(4대 메이저 대회)인 US오픈 2016에서 ATP 단식 랭킹 49위까지 기록했던 강자다.

홍성찬은 마르첸코를 상대로 서브에이스 3-0, 더블폴트 2-5 등 압도적 경기력을 보여주며 광주오픈 첫 승을 챙겼다.

경기 후 워업존으로 이동한 그에게는 초등 테니스 꿈나무들의 사인 요청이 이어졌다.

홍성찬은 이날 "부산에서부터 힘든 경기를 하고 와서 광주에서 바로 시합을 했는데 몸도 편찮고 컨디션도 좋은 상태였다"며 "쉽지 않은 상대였지만 분위기가 좋아서 좋은 경기 한 것 같다. 단추를 제대로 채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느낌이다"고 경기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또 그를 응원하던 이들을 상기하며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고 싶다. 많은 관중이 지켜봐줘 좋았다"고 전했다.

홍성찬은 지난 14일 마무리된 부산오픈 챌린저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ATP세계랭킹을 그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순위인 172위까지 올렸다. 부산오픈에서의 성과는 그에게 테니스 선수로서의 자신감을 줬다.

홍성찬은 "부산오픈은 한국에서 제일 큰 대회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시합이다"며 "많은 관중 앞에서 시합하면서 테니스 선수로서 많이 성장했구나 느낀 대회였다"고 전했다.

그는 분위기를 이어 이번 ATP 광주오픈 챌린저에서도 우승을 노린다. 18일 열리는 16강에선 1997년생 동갑내기 선수인 시마부쿠로 쇼(일본·173위)와 맞붙는다.

"매시합 우승하는 게 목표고 당연히 이번 시합도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홍성찬은 "매시합 100% 만족하지 않는다. 좀더 공격적인 선수로 인식을 바꾸는 게 목표기도 하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컨디션도 너무 좋아서 아직까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 힘들어할 때도 아닌 것 같다. 매 경기 때 포인트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김하성, 시즌 3호 쓰리런 폭발

샌디에이고, 밀워키에 6-3 승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시즌 3호이자, 빅리그 개인 통산 39호 홈런을 쳤다.

김하성은 17일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방문 경기에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볼넷 3타점 1득점 했다.

1회 첫 타석에서 짜릿한 솜맛을 봤다. 1-0으로 앞선 1회초 1사 2·3루, 김하성은 밀워키

원손 선발 웨이드 마일리의 2구째 시속 141km 컷 패스트볼을 공략해 왼쪽 외야 파울 폴을 때리는 3점포를 터뜨렸다.

MLB닷컴 현지 중계진은 "타구가 로켓처럼 날아갔다"고 묘사했다.

김하성은 지난 13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전 이후 나흘 만에 홈런을 추가했다. MLB 4년 차인 김하성은 빅리그 통산 40홈런에 1개의 아이치만을 남겼다.

이날 샌디에이고는 밀워키를 6-3으로 꺾고, 3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이영준 극장골' 황선홍호, UAE와 1차전 승

19일 중국·22일 일본과 경기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황선홍호가 2024 파리 올림픽 최종예선 첫판에서 후반 추가시간 터진 이영준(김천)의 골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17일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후반 49분야에 나온 이영준 결승골로 아랍에미리트(UAE)에 1-0 승리를 거뒀다.

이 대회는 파리 올림픽 남자축구 최종예선을 겸한다.

이번 대회 3위까지 파리행 직행 티켓을 거머쥐며, 4위 팀은 대륙 간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해야 파리로 갈 수 있다.

승점 3을 챙긴 한국은 앞서 열린 경기에서 퇴장 약재를 받고 중국에 1-0 승리를 거둔 일본(승점 3)과 공동 1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조별리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첫판 승리로 장식한 한국은 남은 한중전, 한일전의 부담감을 어느 정도 줄였다. 한국은 19일 오후 10시 중국과 2차전을, 22일 오후 10시 일본과 3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좋은 장면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갔다.

전반 14분 이강희의 기습적인 중거리슛을 UAE 골키퍼가 몸을 날려 막아냈다.

전반 18분에는 안재준이 강상윤의 땅볼 크로스를 멋있게 오른발 백힐로 마무리해 상대 골망을 흔들었으나 비디오판독(VAR) 끝에 앞선 상황에서 강상윤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것으로 드러나 득점이 취소됐다.

고대하던 결승골은 후반 추가시간에 터졌다. 교체 투입된 이영준이 후반 49분 이태석이 오른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타점 높은 헤더로 마무리해 골망을 출렁였다. 후반 추가시간이 12분이나 주어졌고 황선홍호 선수들은 끝까지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세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